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 최고의 불교대학!
동국대학교 인재불사에 함께 해주세요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0-649193 (예금주: 동국대학교)
후원문의 : 02-2260-3300(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73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1월 19일)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사찰음식 배운 주한대사 부인들 "원더풀"

주한외교대사배우자회(ASAS)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사찰음식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스님)과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는 2월 22일 서울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ASAS 회원 8명 대상으로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사찰음식전문가 성견 스님의 지도아래 오곡밥과 묵나물을 만들어 시식했다.

글=김내영 기자, 사진 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직할교구 예산서 '천진불 한마당'이 사라졌다

조계종 직할교구, 각종 사업예산 대규모 감축

경상회계 19% 줄여 예산 확정
'천진불 한마당' 예산 전액 삭감
포교조직, 장학사업도 타격 입어

직할교구 특성상 분담금에 의존
중앙분담금 납부 후 17%만 운용
경상비 지출 커져 사업예산 축소
'수도권 포교활성화' 위축 우려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수도권 사찰 새싹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운동으로 단합하고 불심을 키우는 축제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을 올해는 볼 수 없게 됐다. 지난 2011년 시작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지난해 10월 4년 만에 다시 열린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은 700여 명의 천진불이 뛰어놀며 계층포교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주관하는 조계종 직할교구의 올해 예산이 한계에 부딪혔다. 직할교구는 이뿐만 아니라 포교조직 지원, 계층포교, 장학금 지원을 비롯해 사실상 모든 사업예산을 감축하기로 해 수도권 포교 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계종 직할교구(교구장 진우 스님, 총무원장)는 2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올해 첫 교구종회를 열고, 교구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2023년도 대비 경상회계는 19.2%(9180만원) 줄어든 3억8550만원으로 확정했다. 문제는 차년도 이월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5000만원가량 늘어난 금액이어서 사실상 사찰관리와 포교사업 예산 감축 폭은 전체 예산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산 감축 사업이 바로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이다. 지난해 58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행사를 치렀지만 올해는 전액 삭감했다.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며 수많은 사찰 어린이법회가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여법하게 행사가 열려 호응을 얻었지만 올해는 개최 자체가 어려워졌다.

또한 직할교구 포교조직 지원 항목의 '조계종주지협의회 활성화'와 '직할교구신도회 조직 강화' 사업도 절반 내외로 예산이 줄었다. 계층법회와 장학금 지원 역시 지난해 대비 27%가량 감축했다.

직할교구가 이 같은 삭감 기조로 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에는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 직할교구는 본사를 갖춘 일반적인 교구와는 다른 수입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직할교구가 평균적으로 거둬들이는 분담금은 연간 16~18억원 수준. 이 가운데 83%는 중앙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결국 직할교구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 분담금의 17%인 약 3억원뿐이다. 일반적인 교구처럼 입장료나 재(齋)수입 등 분담금 외 발생하는 수입이 전혀 없다.

여기에 더해 총무원이 부담하던 직할교구 사무처 종무원 인건비 일부가 몇 년 전 직할교구로 이관되면서 사무처 경상비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직할교구 사무처 종무원 4명 중 2명은 총무원 순환 보직으로 인해 업무를 맡기 때문에 관련 인건비를 총무원이 부담해왔던 것. 2018년 6000만원대였던 직할교구 사무처 연간 인건비는 현재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문제는 예산 한계의 원인은 알지만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직할교구 예산을 늘리기 위해 중앙분담금 요율을 낮추면 총무원 예산이 줄어들기에 중앙분담금 요율 조정은 밑돌 빼서 윗돌 고이기에 가깝다. 포교 활성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기금이 필요한데 사찰경제도 전체적으로 어려워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직할교구의 한 상임위원스님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찰경제도 좋지 않아 포교에 어려움이 클 것 같다"며 "(예산 감축은) 아쉽지만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총무원 총무부장과 직할교구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성화 스님은 "예산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은 행사 개최가 가능할지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성파 종정예하 "자장매 더욱 붉다"

계묘년 동안거 해제 법어 내려 용맹정진 당부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오는 2월 24일 동안거 해제일을 앞두고 해제법어를 내려 운수납자들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성파 대종사는 2월 21일 발표한 동안거 해제법어에서 "여울의 성난 파도 바람과 비를 때리지만 홀로 서 있는 백로의 마음 갈수록 한가롭네"라고 게송을 읊었다. 대종사는 이어 "물보라 넘어 펼쳐지는 경치는 백로의 곧고 강한 다리와 물결을 이기는 힘이 아니면 보지 못하며, 쏟아지는 물줄기의 틈새를 보지 못하면 드러나지 않으리라. 그대들은 무슨 경치를 보았는가?"라고 물으며 안거를 성만한 대중의 수행을 점검했다.

성파 대종사는 또 계묘년 동안거를 "청규를 준수하고 대중이 화합하여 화두참구의 일념으로 정진하니 다사다난한 세간 일이 꿈같이 스쳐갔다"고 평하고 "세간의 많은 이들이 영축산의 봄소식을 묻는다면 영각 앞 자장매는 더욱 붉고 무풍한송은 더욱 푸르다 하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에서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계묘년 동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전국 93개 선원(총림7·비구선원59·비구니선원27)에서 총 1861명의 대중이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정예하 · 총림 방장 법어 8면〉

윤호섭 기자

"의사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오십시오"

의료대란에 각 종단 총무원장 호소문 발표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이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했다.

진우 스님은 2월 22일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 개혁 정책과 관련해 전공의 여러분들이 대규모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현장에서 환자를 살필 의사가 없는 전례없는 의료 공백이 시작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의 현장 복귀는 생명의 가치를 살리는 소중한 공헌이다. 조속한 복귀로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에도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진우 스님은 또 "위기는 기회로 바꾸고 갈등은 화합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생명의 무게를 지고 계신 의료계 종사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상생의 지혜가 발현되기를 기원한다. 한국불교계 역시 여러분의 어려움과 함께하며 선명상,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진 스님은 하루 앞서 발표한 호소문에서 "의료계에 골든타임이라는 용어가 있다. 지금이 국민 안정이 필요한 결정적 순간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소명의식을 되새기며 부처님의 자비심과 불교의 화쟁사상으로 임하다 보면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감히 여러분께 권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정부에도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진 스님은 "지금의 사태에 대한 대승적 검토와 의사와 예비의사들이 요구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법명 스님도 22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생명을 다루고 고통을 치유하는 직업은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환자가 볼모가 될 때는 집단행동을 멈춰야만 한다"며 "그것이 의사가 갖는 직업적 윤리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정부에도 "의사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하고 의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대승적 대안을 제시 해야만 한다"고 촉구하며 "그것이 국민이 정부를 믿는 위임 통치의 가치 실현"임을 분명히 했다.

신중일 · 윤호섭 기자

대행선연구원 불교 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 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아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 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제7회 묘공학술상 공모

공모분야 :
-한마음선원 및 대행 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응모 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선정 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패
공모 기간 : 2024년 3월 1일(금)~31일(일)
※ 공모 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제6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 중인 대학원 재학생 (석사, 박사, 통합 과정)
선발 인원 : 0명
공모 기간 : 2024년 3월 1일(금)~31일(일)
※ 공모 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한마음연구』 원고모집

발간 시기 : 연3회 - 2024년은 홈페이지 참조
- 2025년부터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투고 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투고 시기 : 연중 접수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 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투고 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 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한마음연구』는 연회비와 심사비, 게재료, 연구지원기관 표시비를 받지 않습니다.

■ 문의 및 서류 케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전화** 031) 470 - 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대행선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 SEON STUDIES